

**동우컬럼**

천국에서 만나요

“목사님,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릴게요.”
 “권사님, 먼저 가세요. 곧 천국에서 만나요.”
 연로하신 어느 권사님이 임종 직전에 나와
 통화한 내용이다. 죽기 전에 누가 이런 말
 을 할 수 있을까? 구원에 확신이 있는 거다.
 당신은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이 질문에는 1초의 망설임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걸 말이라고 하나? 나는 공로 없
 지만, 예수 그리스도로도 말미암아 당연히 천
 국에 갑니다.’라고 툭 튀어나와야 한다.

그런데 어느 통계에 의하면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천이라는 사람들의 90%가 이 대답 대신 '죽어봐야 알지요.'라고 답했단다. 가슴을 칠 일이다. 내가 장담하건대 그렇게 말하는 자들은 절대 천국에 못 간다.

고린도후서 13장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한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린 자니라”(고후13:5).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그런 자는 버린 자라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요5:24). 예수를 믿는 순간 구원을 얻어, 지옥문이 닫히고 천국문이 열린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롬1:16).

그런데 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가? 이는 자신을 돌아보니 향기 나는 삶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선함으로 인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받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구원에 따른 확증으로 우리 행위가 아름답고 향기 나는 삶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강도도 예수를 믿음으로 낙원에 간 것이다.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벧전 1:9). 우리가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은 천국에 가는 것이다. 천국은 ‘예수’라는 비자만 내밀면 프리패스 뒀을 알자.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

교회는 핍박이 거셀 때 더 부흥 성장한다. 초대교회의 부흥이 그러했고, 한국교회도 핍박과 순교를 넘어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다. 우리 교회의 부흥과 성장 역시 마찬가지다.

국가적으로도 대내외의 도전이 거셀 때 더욱 결집하고 성장동력이 극대화되는 것을 본다. 외부의 적은 내부의 결집을 강화하고 조직이나 단체의 힘을 더 공고하게 하는 동인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야고보나 베드로 사도 모두 우리
에게 오는 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
히려 기뻐하라 가르치지 않는가? 목사님
도 ‘저센 과도가 유능한 해군을 만든다’

한 집주인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자리를 채우라고 종들에게 명령하는 장면이 나온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곁과 산을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눅14:23). 인간이 보기에 멋진 방식으로 진행될 듯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허다하다. 문제는 인간의 논리란 잣대로 하나님을 재단하려는 무지와 무도함이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리하신다는데 피조물인 인간이 어찌 혈문할 수 있단 말인가. 2014년 서울시청광장에서 평화통일 기도성회를 추진할 때, SNS를 통해 이런 글이 올라온 적이 있다. ‘교회에 대한 시

교회다.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교회라면 더욱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언으로 남기신 지상 최대의 명령을 최선을 다해, 사도들처럼, 목사님처럼 목숨을 걸고 수행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복음을 전하러 베네수엘라(Venezuela)로 떠난다. 전도자 신다쌍의 말처럼, 개는 짚어도 기차는 달려야 하기 때문이다. 목사님의 40년 목회 역시 이러한 항구여일한 자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단의 괴수라며 교계로부터 온갖 핍박을 받으셨지만, 목사님은 단 한 번도 뒤로 물러가 침묵에 빠진 적이 없으셨고,



복음 전도의 사명은 멈출 수 없다(2024 전주실내체육관 집회 광경)

고 누누이 강조하신다.

이번 전주실내체육관 집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집회 참석을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일당을 주고 사람을 모집하려는 내용이 지역 기독교 방송에 보도되며 약간의 파장이 있었다. 이를 두고 마치 교회가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려 한다는 식의 비판이 있었는데, 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몰상식이다. 기독교인들이 오해하며 범하는 오류 중의 하나가 자꾸 인간의 생각으로, 상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 한다는 점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어떤 방식으로, 어떤 통로를 통해 이루어질지 알 수 없다.

누가복음 14장 16절 이하에 보면 잔치
에 초청받은 자들이 참석을 거부하자 노

선이 좋지 않은 때에 굳이 서울 한복판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이 온당치 않아 보인다.’는 것이었다. 그때 이렇게 답했던 기억이 있다. ‘그러니까 더욱 교회가 교회 본연의 사명을 다해야 하지 않는가? 세상이 뭐라 한다고 교회가 주눅이 들어 잠잠해야 한다면 누구 좋으라는 것인가?’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요15:19). 교회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아서는 안 되겠지만, 교회 본연의 사명, 곧 예배와 선교사역으로 인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은 성경이 옹호하는 일인 것이다. 따라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움츠러들고 두려워하는 교회는 죽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도 바울처럼 목숨조차 하나님께 바친다는 각오로 전도의 사명을 묵묵히 수행해 오셨다. 그 복음의 열매가 오늘날 전 세계 70여 개국에 주렁주렁 열려 오늘의 예수중심교단을 이룬 것이다.

70 중반의 연세에 이틀간의 전주실내체육관 집회에 혼신을 다하시는 목사님을 보니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조금도 달라진 게 없다. 주군의 명령을 받은 신하가 죽을 때까지 그 명령을 받들기 위해 노심초사하는 모습이였다. 우리 모두 목사님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는 삶에 최선을 다하자. 현재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장차 그날에 받을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다. 할렐루야!

한은택 목사

베네수엘라 목회자세미나 및 집회

7월 2일(화)~12일(금)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대하24:15~25)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는 미래가 없다

‘과거의 은혜를 생각할 것이냐, 현재의 이익을 생각할 것이냐?’ 이 명제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답은 명확합니다. 과거의 은혜를 잊은 자에게는 절대 미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배은망덕(背恩忘德)한 요아스의 이야기입니다. 요아스는 아달라의 왕족 대학살이 일어났을 때 고모인 여호사브앗이 숨겨주면서 가까스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보호를 받으며 자라다가 일곱 살 때 여호야다가 아달라를 폐위함으로 요아스는 왕으로 추대됩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그의 가르침대로 선정을 베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나이 들어 죽자 간신배들의 말에 넘어가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를 보내 충고하였지만 요아스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를 보내 충언하게 하십니다. ‘다른 사람 말은 안 들어도 널 오늘에 있게 한 여호야다의 아들 말은 들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웬걸요, 요아스는 스가랴를 죽여 버렸습니다. 누가 자기를 구해줬고, 누가 키웠으며, 누가 자기를 왕위에 올려놓았는지 잊은 겁니다. 성경에는 이 기막힌 일에 대해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비 여호야다의 베푼 은혜를 생각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죽이니 저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와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대하24:22).

하나님이 당연히 신원하셨지요. 1년 후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 요아스가 전장에 나갔는데 다쳤습니다. 그러자 요아스의 신복들이 그를 죽여버렸습니다. 왜요? 은혜를 모르는 놈은 죽어도 싸다 생각한 겁니다. “그 신복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인하여 모반하여 그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대하24:25).

**과거의 은혜를 생각할 것인가
현재의 이익을 생각할 것인가**

은혜를 모르는 자의 결국은 이렇습니다. 사울도 그랬습니다. 사울이 골리앗으로 인해 고민할 때 어린 다윗이 나가 골리앗을 물리쳐주었고, 사울에게 악신이 들어왔을 때 다윗이 수금을 타서 악신을 쫓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은혜를 갚기는 고사하고 시기 질투가 가득하여 되레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쫓아다녔습니다. 그런 사람이 잘 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다. 결국 사울은 그의 아들과 함께 비명횡사하고 말았습니다.

나발이란 자도 그랬습니다. 양털을 깎는

잔칫날이 되자 다윗은 나발에게 사람들을 보내어 먹을 것을 구합니다. 다윗은 나발에게 당당히 요구할 자격이 있었습다.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광야에서 나발의 목자와 양들을 노략질하려는 자들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해주었기 때문입니다(삼상25:7). 그런데 나발의 반응이 아주 괴팍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근일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서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삼상25:10~11).

‘나는 그런 자를 모른다’

다, 못 준다’ 이겁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 미래가 없다고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이 나발을 치시매 그는 죽었습니다(삼상25:38).

가룟 유다도 동일합니다. 가장 신임하는 자에게 돈뎌를 맡기는 법,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돈뎌를 맡기신 것은 그만큼 믿으신 거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은 삼십냥에 스승인 예수를 팔았습니다. 그 결과요? 죄책감에 사로잡혀 스스로 목을 매고 자살로 생을 마감했지요.

제가 신학교를 보내고, 안수해서 주의 종을 만든 제자 중에도 저를 배척하고 저주하고 떠난 자들이 있습니다. 어느 제자는 저를 보자 무슨 전염병 환자를 본 듯 다가오지 말라며 도망치더라고요. 그런 자가 잘 될까요?

반면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어찌하든 갚으려고 했던 자들이 있습니다. 왕위에 오른 다윗이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인 므비보셋이 생존해있음을 알고 그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조부 사울의 발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삼하9:7)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므비보셋에게 기브야에 있던 사울의 소유지를 다 주고, 자신과 평생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다윗은 바실래라는 사람에게 은혜를 갚았습니다. 그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마하나임에서 피난하고 있을 때 다윗군에게 식량과 생활필수품을 제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공예에 감사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바실래에게 동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은혜를 갚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실래는 자기 대신 아들과 동행을 원했고, 다윗은 바실래의 아들에게 그 동행 안 받든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은혜를 갚았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이에 그치지 않고 그가 임종할 때 아들 솔로몬에게 바실래의 후예를 잘 대우하라고 유언합니다(왕상2:7).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에도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합구하고 옥으로 향했던 것은, 그간 자기를 믿고 가정 총무로 써준 보디발의 은혜를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늙었지만 자신을 구해준 모르드개에게 은혜를 갚지 않았습니까?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짐승 같은 인면수심(人面獸心), 쓸모가 없어지면 뒤도 안 돌아보고 버려버리는 토사구팽(兎死狗烹), 이거 아주 나쁜 처사입니다. 하긴 부모도 늙어 힘없고 쓸모없으니 까 내다 버리는 세상이 되었으니 무슨 말을 더하겠습니까?

말하면 뭐 합니까? 하나님을 토사구팽하는 자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어느 사람이 잔치를 배설하고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소 다섯 겨리를 사서’, ‘장가들어서’ 못 간다고 했습니다. 이에 초청한 사

람이 노를 발했지요. 직장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 그렇게 매달리더니 취직되고 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 하나님을 잊는 자, 집 달라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집을 주시니 자기가 이룬 듯 하나님을 몰라라 하는 자, 그런 자가 하나님을 토사구팽한 것입니다. 누가 됐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새겨야 사람이지요. 그러지 아니하면 언젠가 하나님이 그를 팽(烹)하실 것입니다.

**흐르는 물 한 컵을 떠취도
그 은혜를 잊지 말라**

“내 영혼아 여호와와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찌어다”(시103:2).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살리셨습니다. 우리 구원이 우리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엡2:8).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주셨습니다(고후9:8). 이 은혜를 잊지 말고 갚아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시116:12)라고 했습니다. 제비도 자신의 부러진 다리를 치료해준 흥부에게 박씨를 몰아다 주어 은혜를 갚습니다. 미물보다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사무쳐 자기의 일생을 바쳤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하여 주리고 헐벗으며 사십에 하나 감한 때를 다섯 차례 맞았고,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을 듣고도 그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전15:10)고 고백했습니다. 저 역시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가까이 한목숨 내놓기로 작정하고, 모든 것을 뒤로한 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문둥병 열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다시 찾아와 감사한 자는 오직 한 명 뿐이었습니다(눅17:11~19). 여러분이 그 한 명이 되십시오. 취직시켜준 사람, 창업할 때 함께 고생한 사람, 개척할 때 함께 했던 성도들, 단칸방에서 함께 고생하던 아내, 진자리 마른자리 가려가며 키워주신 부모님, 나를 위해 기도해주시는 목사님,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절대 잊지 맙시다. 할렐루야!



총회장 이초석 목사

:: 객원컬럼 ::

:: 책을 펴다 ::

거룩한 믿음의 정절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은 기독교적 용어가 아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고 희생을 다해 정성을 바치면 하나님이 감동하시리라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적 믿음이 아니다. 우리의 믿음은 정성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다. 즉, 우리는 지성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드리는 것이다. 순종과 믿음은 동일한 단어인 것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축복받은 존재로 태어났다. 입으로 들어가는 육의 양식과 아울러 하나님의 계시로 주어지는 영의 양식을 동시에 먹고 사는 존재인 것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보면 휘발유와 엔진오일을 넣을 곳이 각각 따로 있다. 휘발유를 넣을 곳에는 휘발유를 넣어주고, 엔진오일을 넣을 곳에는 엔진오일을 넣어주어야만 자동차는 움직이게 된다.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자동차는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의 육신은 떡을,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한다. 이는 인간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계획이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말씀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주셨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영이 그 말씀을 먹는 것이다. 우리 영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만드신 것이다. 인간은 선악과 없는 종교를 원한다. ‘내가 원할 때 내 요구는 만족시켜주어야 한다.

그러나 내게 요구는 하지 말라’는 것이다. 보름달 아래 정안수 떠놓고 빌거나 손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은, 우상은 하라, 마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선악과 없이 아쉬울 때 가서 복을 구하면 된다. 타락한 인간은 선악과 없는 종교를 사모한다. 그래서 수많은 종교가 생겨난 것이다. 선악과 없는 종교가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선악과 없는 신앙생활을 흠모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 하나님께 복은 받으려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부담스러워한다. 타락이란 인간이 하나님같이 되려 하는 행위를 말한다. 곧 자기 의지를 자기 임의대로 쓰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 왜 인간은 슬픔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가?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해주신 엄청난 축복을 인간 스스로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타락으로 부패된 인간의 본질을 회복하며,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풍성케 하려 함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 문을 활짝 열어 예수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로 하여금 나를 지배하게 하시기를 바란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6:63).

신기류 목사
abba7777@naver.com

이리가 나타났어요

중국의 주나라 12대 왕이었던 유왕에게 포사라는 아름다운 후궁이 있었다. 그런데 그녀는 도대체 웃는 일이 없었다. 유왕은 아름다운 포사가 웃는 걸 보고 싶어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보았으나 소용이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드디어 포사가 웃었다. 왜? 그 자초지종은 이러했다. 당시 통신수단은 봉화였다. 위급한 일이 있을 때 봉화를 올리면 제후들이 군사를 이끌고 왕궁으로 달려오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하루는 군졸의 실수로 봉화가 잘못 올려졌다. 군사를 이끌고 황급히 왕궁에 도착한 제후들이 어쩔 줄 몰라하는 것을 보고 포사가 살포시 웃었다. 그녀의 웃는 모습에 유왕은 너무 기뻐했다. 그런 포사의 웃는 모습이 다시 보고 싶은 유왕은 일부러 봉화를 올리게 했고... 그 후에도 이 일은 반복되었다. 기원전 771년, 정말 주나라에 적국이

쳐들어왔다. 유왕은 긴급히 봉화를 올리게 했지만, 어떤 제후도 오지 않았다. 이번에도 포사를 웃게 하려는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다. 결국 이 싸움으로 유왕은 죽고, 그 아들 평왕이 수도를 옮기며 겨우 나라의 명맥만 이어가다 제후들 간의 춘추전국시대를 맞게 된다. 혼자 있어 심심했던 양치기 소년. ‘이리가 나타났다’ 하니 마을 사람 모두 양치기 소년을 도와주러 산으로 올라왔다. 양치기 소년은 그것이 재미있었다. 그래서 이 일을 반복했다. 그러다 정말 이리가 나타났고, 양치기 소년은 마을을 향해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그때는 아무도 오지 않았다. 거짓말은 스스로 파는 함정이다. 그 함정에 빠지는 자는 결국 그 함정을 판 자임을 알자.

이초석 목사 저서 ‘사랑이 무르익어아 결혼에 골인한다’ 중에서



:: 교단소식 ::

사랑의 동반자는 온유함이다



“오래전 일이다. 모처럼 기도원에 쉬러 내려갔는데, 어느 권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내가 보고 싶단다. 이제 막 기도원에 내려왔는데, 다시 서울까지 올라가려니 솔직히 귀찮았다. 정말 쉬고 싶었다. 그래서 주말에 올라가서 찾아가겠다 하곤 기도해주고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며칠 후 연락이 왔는데 아뵐까! 그 권사님이 소견하셨다는 게 아닌가. 나는 그때 얼마나 가슴을 치며 후회했는지 모른다. 귀찮다는 이유로 권사님의 마지막 소원을 거절한 나를 책망하며 정말 하염없이 울었다. 나는 그 후로 성도들의 일에 절대 귀찮아하지 않는다. 기도원집회 때 서너 시간 설교하고 내려와 젖은 옷을 갈아입지 못해도 성도들

세 살 터울, 혹은 연년생인 일곱 자식이 젖을 물어뜯어도, 물어본 걸 다시 물어봐도, 이것 해달라 저것 해달라해도 우리 어머니는 귀찮다고 하신 적이 없다. 사랑하는 내 자식이니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자식을 두셨는가? 그 많은 자식이 매일 울고불고해도, 매일 실수해서 뒤통수대려지려해도, 뭘 해달라고 졸라도 절대 귀찮아하시지 않는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두고 여섯 번이나 묻고 물어도 일일이 답해주셨다. 아무리 부모라도 그렇게 자주 물으면 짜증 내며 ‘그만 귀찮게 해라.’ 할 텐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 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렇다. 사도 바울은 사랑을 이렇게 정의

했다.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고전13:4~7). 나는 거기에 하나를 더 추가한다. ‘사랑은 절대 귀찮아하지 않는 것이다.’ 주의 종이 만일 성도들이 귀찮다면 그건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 증거다. 아무리 훌륭한 설교를 하고,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해도, 산을 옮길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고전13:2~3). 그저 물리는 팽과리에 불과하다. 목회란 양 떼를 돌보는 것일진대 양이 귀찮아서야 말이 되겠는가. 사랑의 동반자는 온유함이다. 사랑과 온유라는 부모 밑에서 평화와 자유라는 자식이 나온다. 온유란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이다. 어느 누가 차고 딱딱한 것을 좋아하겠느냐? 따뜻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을 좋아하는 것은 인지상정(人之常情)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형제를, 이웃을, 성도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고,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이다(요일4:7~8). 예수님도 사랑이시며 온유하신 분이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마11:28~29).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자라면 서로 사랑해야 하며, 온유한 자가 되어야 마땅하다. 특히 사도 바울은 주의 종들에게 온유한 자가 되라고 당부했다.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딤후2:24). 나도 여러분에게 당부한다. 온유한 종이 돼라. 학문만 가득해서 머리가 가분수처럼 커지지 말고, 따뜻한 가슴을 가진 목회자들이 돼라. 나는 늘 사랑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노력했다. 그랬더니 모세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사랑의 종이 되었다. 그것이 목회 성공의 비결이다.” 이것은 지난 6월 14일, 예수중심제자신학원 2024학년도 1학기 종강예배에서 교수진들과 신학도들에게 목사님이 설교하신 내용이다. 설교 후 교수진들과 신학도들이 함께 식사했다. ‘우리는 이렇게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거야!’ 목사님 말씀에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했다. 또 새로운 시작을 위해 다 같이 힘차게 뛰어보자. 할렐루야!

신묘수 전도사

:: 영생에 이르는 길 ::

:: 귀를 기울이세요 ::

오래 참음

살면서 가장 힘든 일 중의 하나가 오래 참는 것입니다. 만사가 하나님의 경륜과 뜻에 따라 흘러가고 있기에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연약한 우리는 답답하고 힘들기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원하던 원하지 않던 일이 성사되고 결과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영혼의 성결과 거룩이고, 우리 관심은 세상의 성공과 재물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사그라지도록 자아가 죽으려면 내 뜻에 어긋나고, 그래서 실망하고 내려놓아야 하는 일을 수백 번 반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 상황 속에서 오래 견디고 기다리는 인내를 배우게 됩니

다. 믿음 있는 자의 특권이 기다림이란 것을 알게 되지요. 아브라함은 25년 기다림 끝에 이삭을 얻었고, 요셉은 13년 고난 끝에 꿈을 이뤘고, 모세의 40년 광야는 절대 헛되지 않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갈 지도자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도 때가 되니 십자가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음이고, 사랑의 정 의도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는 모습을 통해 믿음이 증명됩니다. 모든 것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입 니다. 임신을 해도 만삭이 될 때까지 견뎌야 아기가 태어나는 것처럼요. 내 힘과 언변으로 상대를 바꿀 수 없습니

다. 내가 내 맘도 맘대로 못할 때가 많은데 누굴 바꾸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마음에 집중하는 일과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려는 자세로 살면서 오래 참고 기다린다면 항상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래 참음을 요구하시는 것은 내 뜻대로 상대나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고전13:4),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화평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갈5:22~23).

김영종 목사

서울성전 건축헌금 계좌안내

국민은행 026401-04-297823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 계좌 송금 시 성함과 소속교구(교회) 순서로 기입해주세요

:: 한국 교회사 ::

한국 최초의 기독교 선교사

1884년 9월 20일, 호레이스 알렌은 미국 북장로회 소속 선교사로 제물포를 통해 조선의 최초 기독교 선교사로 입국한 역사적인 날입니다(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140년을 맞이합니다). 그는 한국 최초의 의료 선교사로 파견되었으나 아직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은 조선에서의 선교 활동을 위해 미국 공사관의 외교 기관의 관의로 채용되었고, 여러 외국 기관의 부속 의사로 임명되었습니다. 첫 선교지인 중국에서 알렌은 아내의 건강 악화와 여러 어려움을 겪으며 이렇다 할 선교 활동을 벌이지 못했습니다. 이와 달리 조선은 그에게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당시 한성(현재 서울)에는 서양인들을 진료할 만한 양의가 없었기 때문에, 외국인 공사와 그의 가족들은 알렌의 입국을 크게 반겼고, 그는 외국인 거류민들을 진료하는 의사로 활약했습니다. 그리고 1884년 겨울에 발발한 사건은 그의 인생 행보를 크게 바꿔놓았습니다. 바로 알렌이 조선에 들어온 지 약 3개월 후에 일어난 갑신정변입니다. 갑신정변 때 크게 다쳐 목숨이 위태롭던 민영익을 14명이나 되는 한의사들도 살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때 알렌은 밤새 치료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사람을 살려주세요! 한국 선교를 위해 살려주세요!’ 알렌은 3개월 동안 민영익의 옆을 떠나지 않고 정성을 다해 치료한 결과 그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알렌은 민영익을 치료해준 일로 고종의 신임을 얻게 되었고, 왕실의 어의(임금의 주치의)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한국 선교의 기틀을 마련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민영익은 생명의 은인 알렌에게 감사해서 10만 냥을 주었습니다. 알렌은 이 돈을 종잣돈으로 조선에 서양식 병원을 건립할 계획을 세웠고, 알렌은 고종에게 병원 건설안을 제출하며 한국 근대 의료사에 큰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이 건설안이 받아들여지면서 1885년 4월 10일,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광혜원이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의료 선교사로서 알렌의 도전이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알렌의 의료 선교는 선교사들의 입국을 허용할 수 있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들이 입국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닦아놓았습니다. 알렌 선교사의 의료 활동은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 조선인들에게 서양 의학의 우수성을 알리고 이를 통해 서양 문화와 기독교를 전파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또한 조선 왕실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왕실의 신임을 얻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갑신정변 후 처형된 홍영식의 옛집(현재 헌법재판소 자리)에 1885년 4월 23일 고종이 준 이름 ‘많은 사람을 구제하는 집’이라는 제중원(세브란스병원의 전신)이 세워졌고, 알렌은 초대 원장으로 한국인의 몸을 치료했습니다. 개원 후 1년 동안 만 명이 넘는 환자들을 진료했으며, <제중원 일차년도 보고서>로 그 기록을 남겼습니다. 1886년 3월에는 제중원 학당을 세워 한국에서 최초로 서양 의학교육을 시작했

습니다. 교수는 알렌, 해론, 언더우드가 학생 수는 16명이었습니다. 알렌의 외교 활동은 그가 의료 활동을 통해 얻은 신뢰를 바탕으로 조선과 미국 간의 관계를 강화하는데 기여했고, 미국 공사로서 활동하며 조선의 근대화와 개혁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1887년부터 그는 외교관으로 활동하는데, 1905년까지 주미한국공사관 참찬관(서기관), 변리공사 및 총영사, 특명전권공사 등을 역임하며 열강이 조선을 침략하려는 의도를 간파하고 미국과 우호관계를 두텁게 하는 데 이바지했고, 미국 교회가 한국 선교를 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했습니다. 알렌은 의료 선교사로서 제중원을 중심으로 초창기 선교사들의 선교 사역에 길을 열고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오는 데 도움을 준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였습니다. 알렌의 교육 활동은 제중원 학당(1886.3)을 설립하고 서양 의학을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였고, 한국 최초의 의학 교육 기관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알렌 선교사의 업적은 의료, 교육, 외교 등 다방면에 걸쳐 1905년 한국을 떠날 때까지 한국의 근대화에 기여하고 한국 사회의 발전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놀랍게도 알렌의 별장은 인천 송의동에 우리 교회가 사용하던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 알렌의 기도와 총회장 목사님의 기도로 예수중심교회가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종춘 목사

십일조의 힘

가정집마다 하나씩 갖고 있는 근육통 치료제 ‘멘소래담’. 이 의약품의 CEO가 록펠러 다음으로 십일조로 큰 복을 받은 부자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미국의 약사 ‘알버트 알렉산더 하이드’가 만든 멘솔이 재료인 소염진통제는 100년 넘게 전 세계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원래 서점을 운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887년 미국에 막대한 경제 대공황으로 그의 사업은 부도가 나고 10만 달러의 빚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생각하다가 자신이 독실한 크리스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십일조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이드는 그 즉시 가서 집을 팔아 그동안 밀렸던 십일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진 빚을 먼저 갚고 시작하겠습니다.” 그의 이런 행동에 주변 사람들은 파산한 후 미쳤다고 조롱하며 돈도 없는데 십일조를 드리는 그를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하이드는 아랑곳하지 않고 노아처럼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갔습니다. 멘솔을 재료로 의약품 공장을 만들고 판매, 영업에 이르기까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였고 십일조도 빠지지 않고 드렸습니다. 1889년, 사업을 시작한 지 3년 만에 하나님께서는 멘소래담을 세계적인 회사로 성장시켜주셨고, 지금까지 150개국에 수출하는 필수 의약품이 되었습니다. 하이드는 말합니다. “십일조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우리가 명령에 넘치도록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축복해주신다.”

때로는 가족, 지인, 직장동료가 십일조를 하는 우리를 비난하며 어리석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각자의 십일조가 하늘 창고에 쌓이는 값진 보물임을 알고 있습니다. 총회장 목사님께서는 단돈 1원이라도 십일조를 떼먹지 말라고 하시며 이는 만물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십일조 생활로 멘소래담 대표 같은 여호와이레 예비하신 복을 모두 받아봅시다!

송현혜 생도

